

4-14-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 25-28

말씀 제목: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구속의 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에 대하여 로마에서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몸의 구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죄의 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 다윗 왕은 자신의 혼이 죄의 몸에 붙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몸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시 119:23)

그는 언젠가 부활의 날에 자신이 죄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몸의 구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첫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으며, 사람의 죄로 인해 다른 모든 창조물들도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몸 안에 살면서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아담의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벧전 1:9). 그러나 여전히 죄의 몸 안에 살면서 죄의

몸으로 인해 영과 혼이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비록 죄의 몸 안에 살고는 있지만 영과 혼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죄의 몸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을 벗어버린 것이라.”(골 2:9-11)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시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는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찢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히 4:12)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온전하게 창조되었던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과 혼과 몸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을 보시고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다시 자신의 형상대로 회복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셔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들과 세상 죄를 모두 자신의 몸에

전가받으셔서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날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성령을 주셔서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죄의 몸 안에 있는 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 받은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죽을 죄의 몸까지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몸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날인 휴거의 날에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날을 기다리며 살고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창조물들이 얼마나 간절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롬 8:22-23)

이렇게 죄인이 복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라는 삼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휴거의 날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히 10:10).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번의 제사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히 10:1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게 될 때에 휴거와 대 환란이 가까이 왔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눅 21:25-33)

아멘! 할렐루야!